

9) 권 투

우리나라의 권투는 광무대, 단성사의 주인이던 박승필 등이 발기하여 유각권투구락부를 조직하고 회원들 사이에 행하게 한 것에서 비롯된다.

1925년 1월 기독교청년회 체육부에서는 연례행사인 제9회 실내운동회에서 권투종목을 채택하였다. 1927년 9월 13일에 기독교청년회 체육부에서 권투부를 신설하고 부원 30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지도함으로써 권투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28년 6월에는 제1회 전조선권투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지역에 권투가 들어온 것은 서정권이 중동중학을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의 친구들에게 보급하면서부터였다. 1929년 10월 서정권은 전일본신궁경기대회 플라이급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 그해 11월 전일본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1930년 5월 학생선수권대회와 관동학생선수권대회 등을 석권, 5차례 우승을 차지하였다. 1931년 4월 26일 프로로 데뷔하여 동양인으로는 처음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경기를 가졌으며, 이때부터 5~6년간 전성기를 이루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고향인 순천으로 귀향하여 연도관에서 권투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서정권의 문하생으로는 웰터급 이승찬, 라이트급 유창렬, 페더급 노진호, 플라이급 최정채 등이 있었는데 모두 전남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였다. 특히 이승찬과 유창렬은 당시 순천중 재학생이었는데 그당시 일제가 학교 권투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제적당하기도 했다. 김상모는 맹호체육관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1982년 뉴텔리 제8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라이트플라이급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허영모 등을 양성하였다. 1980년대에 이수중과 금당고에 권투부가 창단되어 1985년 제36회 전국학생 아마권투선수권대회 중등부 라이트웰터급의 황성철(이수중)이 동메달을, 고등부 코코급에서 박성춘(금당고)이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1988년에는 이해준 선수가 제69회 전국체전 고등부 플라이급 3위를 차지하였다. 순천에서는 1951년 순천권투협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현재 낙안중·순천상고·순천대에서 권투부를 육성하고 있다.